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공모

중기부, 우수 성과 창출 기업들 모집... 장관표창 수여·저리융자·투자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참여기업들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은 중소기업 R&D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이룬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널리 알려 기업들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의 모집 대상은 최근 5년(2020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를 성공적으로 완료보

통, 우수하거나 수행 중인 기업에서, 우수한 기술력으로 과제매출액 증가, 높은 매출액 증가율 등 경제적·기술적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 30개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 및 에너지·환경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10개사, 우수한 기술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기업 5개사, 혁신을 통해 공공·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 5개사이다.

선정된 모든 기업들에게는 금융 R&D 등 다양한 지원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수성과 50선에 선정된 기업들은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전담은행(IBK, 하나) 저금리 사업화 자금 금리

감면(2%p ↓)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참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해외 유명 전시회·학회 참가 지원 등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받고, IBK 기업은행 일자리 포털(ONE JOB) 입점 지원, 후속 R&D 참여 시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선정기업들에게는 우수성과기업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중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성과 50선 선정기업임을 나타내는 현판을 기업에 제공한다.

2024년에는 336개사가 신청해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이는 2023년 신청기업 170개사 대비 97.6% 증가한

수치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중소기업 R&D를 통한 성과와 혁신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요인으로서, 중기부는 우수한 기술력이 기술사업화로 연결되는 등 기술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R&D 우수성과 50선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www.smtch.go.kr)에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누리집(https://www.mss.go.kr)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농협과 남원농협은 국내산 양파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24일 남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남원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남원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 개최

전북농협, 선제적 수급조절 통한 가격안정 기대

전북농협(본부장 이정환)과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은 국내산 양파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해 24일 남원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2025년산 남원 양파 대만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6월 양념 채소 관측에 따르면 중만생종 양파의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4% 줄었지만, 올해 기상 여건이 좋아 생산단가가 7.5% 증가해 2025년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은 109만톤으로 전년(105만5,000톤)대비 3.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수 증가로 과잉생산이 우려되

는 가운데 전북농협과 남원농협은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고 수급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원에서 생산된 2025년산 양파 240톤을 대만으로 수출하기로 했다.

이정환 본부장은 “이시기후로 인한 양파 생육 지연과 평년보다 이른 장마로 양파 생산 농업인들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확대를 통해 농산물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업인들이 피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실천이 신뢰로’ ... 농어촌공 ‘청렴 라이브 교육’ 성료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24일 전주 본사에서 임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청렴 라이브(Live)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청렴 교육 정책에 발맞춰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청렴 관련 법과 제도에 관한 내용을 공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에 앞서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감사는 “청렴 문화의 정착은 관리자의 솔선수범과 직원의 자발적 실천에서 비롯된다”라며 청렴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한유나 전문 강사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령의 취지와 기준을 설명했으며, 특히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청렴 연극 등 문화 콘텐츠도 함께 구성해 임직원의 집중도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였다.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청렴은 단순한 준법 차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이다”며 “임직원 모두가 청렴을 조직문화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일상 업무에서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사는 ‘임원 직무청렴계약’, ‘임직원 윤리·인권경영 실천서약’, ‘참여형 윤리·인권 주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렴 문화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전북 수산물, 수도권 소비자 사로잡다

‘수도권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성황리 마무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가 주최한 ‘수도권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벨라리타에서 열린 ‘강송로 삼삼마켓’에 참가해, 전북 우수 수산물을 판매하는 수도권 직거

래 장터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장어, 김, 꽃게장 등 총 170여 종의 제철 수산물이 선보였다.

도내 23개 업체가 참여해 시중가 대비 최대 57%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다.

또한 총 2억4,000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며 높은 소비자 반응을 이끌어냈

다.

또한 현장에서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방송도 함께 진행되어, 온라인 판로 확대에도 기여했다.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는 “앞으로도 도내 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 시도와 협업한 직거래 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유통망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중기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상반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노란우산 주요 제도개선 추진실적·발전방안 과제 논의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승중)는 24일 2025년 제1차 전북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노란우산 가입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도내 각 업종을 대표하는 노란우산 가입자 및 소상공인 지원기관 전문가를 포함한 총11인을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가입제한 업종 완화 △장기미납자 강제해지 요건 완화 △장기가입자 세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실적을 공유했고, 임의해

지 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 확대 △경영악화 판단기준 마련 등 노란우산 제도의 주요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가입자 복지 확대를 위한 △단체상해보험 지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경영자문 서비스 △심리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 방안도 공유됐다.

공동위원장인 박숙영 명예회장(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과 안종욱 대표주식회사 울라스는 “노란우산이 단순한 금융 제도에서 나아가 소상공인의 전 생애를 보호하는 진정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

다.

그는 “특히 여성 소상공인과 1인 창업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출산·육아·경력단절, 폐업 이후 제도전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제도와 세심한 복지살계가 요구된다”며 “노란우산이 단순한 ‘가입 유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승중 본부장은 “노란우산 제도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가입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정책 제언을 지속 발굴해 나가 가입자의 편익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전북디자인센터, 제1차 디자인 자문위원회 개최

(재)전북테크노파크 부설 전북디자인센터(센터장 유종길)는 24일, 전북디자인센터에서 2025년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디자인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검토하고 주요사업의 실행계획을 논의하였다.

디자인 자문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도내·외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의 디자인 정책 및 사업운영 등을 위한 각종 계획의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북도 관계자·디자인 및 산업 전문가, 센터 실무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전북디자인센터 운영계획과 △전북디자인산업 5개년 발전방안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뤄졌다.

전북디자인센터는 올해 총 5개 사업에 약 3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고향 관광 상품 고도화 지원, 귀금속 장비 운영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운영을 위해 디자인기업 의견수



렴, 전문가 자문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내부적 분석과 검토를 통해 관리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개선했다.

특히 지원과제의 성과관리 고도화, 홈페이지 기능 개선, 신규사업 기획역량 제고 등 전략적 기획기관으로서 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도 다뤄졌다.

또한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향후 지역 디자인산업의 미래 청사진 제시를 위한 ‘전북 디자인산업 5개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도는 조례에 따라 산업디자인 개발 추진을 위해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번 발전방안은 시로 대표되는 기술혁신, 산업구조 변화,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계획의 일환이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